

懷素 草書와 역대 懷素草書歌에 대하여*

禹 在 鎬**

<目 次>

I. 서론	2. 唐 이후의 회소초서가
II. 懷素 생애와 회소의 草書	IV. 회소초서가의 특징
III. 歷代 회소초서가	V. 결론
1. 唐代的 회소초서가	

I. 서론

당대에는 불교가 성행하면서 사찰과 승려도 많아졌고, 학식과 예술적 소양을 갖춘 승려도 많이 배출되었다. 불교가 발전함에 따라 문학과 예술에도 많은 영향을 미쳐, 불교 문학과 불교 예술이 함께 발전하였다. 문학 분야에서는 皎然, 齊己, 貫休 등 유명한 詩僧도 등장하였고, 예술 분야에서는 글씨를 잘 썼던 書僧, 그림을 잘 그렸던 畫僧 역시 상당히 많이 출현하였다. 인도로부터 불경이 전해져 불경 번역작업이 크게 유행하면서 승려와 일반인들의 불경 寫經 작업 또한 성행하였다. 출판 인쇄술이 아직 발달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련의 일환 내지 불경의 전파와 개인의 공덕을 쌓기 위해 승려들의 寫經 행위가 보편화 되었던 까닭에 서예 분야에서 뛰어난 재능을 발휘한 승려들도 특히 많았다.¹⁾ 아울러 일반 문인사대부들과

* 이 논문은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7S1A5A2A01023989)

** 영남대학교 중국언어문화학부 교수

승려와의 교류도 많아져, 유명 서승들과 이들의 서예를 읊은 문인사대부들의 시 역시 당대부터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이들 당대 서승을 현전하는 서예 작품과 서예 관련 시가를 기준으로 분류해보면, 대체로 현재까지 서예 작품도 전해지면서 《全唐詩》 등에 시인들이 창작한 서예 관련 시도 있고 당 이후 시인과 평자들의 시가와 평론이 전해지는 서승, 《전당시》에 서예 관련한 시는 전해지고 있으나 서예 작품은 전하지 않는 서승, 서예 작품도 서예 관련 시가도 전하지 않지만 《전당시》와 기타 다른 문헌에 실린 시문에 이름이 전해지는 서승 등 몇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다. 이 중에서 서예 작품과 당대 시인들이 창작한 서예 관련 시가 현재까지 전해지고 있으면서 唐 이후 시인과 평자들의 시가와 평론도 전해지는 대표적인 서승으로 懷素를 들 수 있다. 특히 회소는 현전하는 서예 작품도 상당수 있기 때문에, 당대는 말할 것도 없고 역대로 회소 초서를 읊은 시가가 지금까지 매우 많이 전해지고 있다.

본고에서는 당대의 서승 모두를 한 편의 짧은 논문에서 모두 다룰 수 없기 때문에, 당대 서승과 서승의 서예에 대한 연구의 일환으로, 먼저 회소의 서예 작품과 회소 초서를 읊고 있는 역대 시가를 추출 정리하여 분석해보고자 한다. 회소는 일단 생졸 연대도 명확하지 않았으므로 먼저 회소의 생애와 회소 초서에 대해 간략하게 다루어본 후, 당대 회소초서가와 당 이후의 역대 회소초서가에 대해서 탐색해보고, 이를 토대로 회소초서가의 시적 특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 1) 당대에 서승으로 명성을 날린 승려를 대략 당대 전기와 후기로 나누어 개괄해보면, 당대 전기의 서승으로 懷渾, 懷仁, 大雅, 行滿, 湛然, 辯才, 行敦, 知至, 澄觀, 遺則, 智佺, 懷素, 鑒真, 獻上人, 廣利 등을 들 수 있고, 당대 후기의 서승으로는 道秀, 玄應, 建初, 高閑, 璠[翀]光, 亞棲, 貫休, 禪月, 曇域 등을 들 수 있으며, 이들 외에 문헌상에 보이는 당대 사경승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 朱關田, 〈佛教與書法〉(第三節), 《中國書法史: 隋唐五代卷》, 江蘇教育出版社, 2014.6, 209-221쪽 참조. 周小儒·張揚의 〈唐代〉, 《中國歷代僧侶書法》, 山東畫報出版社, 2011, 36-71쪽도 함께 참고할 만하다.

II. 懷素 생애와 회소의 草書

지금까지 나온 書僧 懷素의 생애에 대한 견해를 종합해보면,²⁾ 당대 문헌에 보이는 회소라는 법명을 사용한 승려는 불경 번역으로 유명한 玄奘 三藏의 제자인 회소, 서예로 유명한 書僧 회소, 그리고 당대 崔融이 찬한 <당나라 서승복사의 회소율사비(唐西崇福寺懷素律師碑)>에 언급된 회소 등 모두 3명이 비슷한 시기에 존재하였다.³⁾

이들 3명 중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懷素는 俗姓이 錢이며, 字는 藏眞인 狂草書의 대가 회소이다. 그런데 서승 회소의 생몰 연대는 지금까지 두 가지 설이 있었으나, 현재는 대략 당나라 開元 25년(737년)에 태어나 貞元 15년(799년)에 사망한 것이 정설로 정착되었다.⁴⁾ 이는 첫째, 당나라 때의 시인 錢起(722~780)가 지은 시 <생질인 회소 스님이 부모님을 모시러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전송함(送外甥懷素上人歸鄉侍奉)>에서 회소를 생질이라 하였고, 회소의 <自敘帖>에서는 전기를 당숙이라 하며 “당숙인 사훈원외랑 오흥의 전기가 있어(有從父司勳員外郎吳興錢起)”라고 하였는데, 두 작품의 어조를 보았을 때 회소가 725년에 태어났다면 겨우 3살 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이백이 夜郎으로 유배되었다가 사면을 받고 岳州를 유람하던 759년 전후에 零陵에서

2) 회소의 생애를 다루고 있는 선행연구로 <唐懷素評傳>(于清遠, 臺灣 暢流, 1963, 28卷 第6期)에서부터 <懷素評傳>(王元軍, 三秦出版社, 2000.5) 등에 이르기까지 20여 편이 지속적으로 발표되었다. 회소 생애에 대한 논란으로 인해 회소의 생애를 다루고 있는 연구물들은 지난 세기 40여 년 동안 끊임없이 발표되었으며, 王元軍의 <懷素評傳>에서 최종 정리된 모양을 보이고 있다.

3) 熊飛, <唐代僧人三懷素>, <學林漫錄> 第15輯, 中華書局, 2000 참조.

4) 이전에는 開元 13년(725년)에 태어나 貞元 원년(785년)에 사망하였다는 설이 일반적인 견해였으나, 최근에는 회소의 <自敘帖>과 馬雲奇의 <회소대사의 초서 노래(懷素師草書歌)>, 그리고 기타 여러 원전들을 근거로 상세히 고찰하여 정정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方愛龍의 <懷素生平研究現狀綜述>, <杭州師範學院學報> 1994. 第2期, 1994.3에서 자세히 다루었다.

회소를 만나 〈초서를 노래함(草書歌行)〉이란 歌行體詩 한 수를 지어 첫 구절에 “소년 스님 호는 회소인데(少年上人號懷素)”라 하였는데, 만약 회소가 725년에 태어났다면 이 시를 지을 당시에 이미 30대 중반이 넘을 나이였으니 少年이라 부르기가 어려웠을 것이므로, 737년에 태어났을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것이다. 셋째, 馬雲奇의 〈회소대사의 초서 노래(懷素師草書歌)〉에서 “회소 나이 겨우 서른 남짓 되었는데, 호남을 떠나지 않고 초서공부만 하였네.(懷素才年三十餘, 不出湖南學草書.)”라고 읊고 있는데, 이 시는 회소가 徐浩에게 의탁한 후 長安에 들어가기 이전인 大曆 3년(768년) 전후 마운기를 만났을 때 지어졌을 가능성이 가장 크므로, 역시 회소가 725년에 태어났다면 이 시를 지을 당시에는 이미 40 중반이 훌쩍 넘어 있을 때이므로 여러 가지 모순이 있게 된다는 것이다.⁵⁾ 또한 회소 진적으로 전해지는 비단본 〈小草千字文〉의 낙관에 “정원 15년 6월 17일 영릉에서 쓰다. 이 때는 63세이다.(貞元十五年六月十七日於零陵書, 時六十有三.)”라고 하였으니 이에 근거해 추정해보면 회소는 開元 25년(737년)에 태어난 것이 타당하다. 이 진적은 회소의 나이가 기록되어 있는 현존하는 유일한 목적인데,⁶⁾ 만약 회소가 貞元 원년(785년)에 사망하였다면 이 작품은 위작이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중국의 많은 역대 문헌에서는 초서 서예가 회소를 玄奘 三藏의 문인으로 俗姓이 范이고 관적은 南陽이라 기록하여 왔고, 이러한 견해는 20세기 80년대까지 지속되었다. 이는 송나라 때 편찬된 《宣和書譜》에서 “회소는 …… 현장 삼장의 문인이다.(懷素 …… 玄奘三藏之文人也.)”라

5) 范潤華(곽노봉·이정자 역), 《광초미학(狂草美學)》, 도서출판 다운샘, 2016.3, 26-27쪽 참조

6) 明 汪珂玉, 《珊瑚網》 권2, 〈法書題跋〉, 〈藏眞草書清淨經〉 조 “貞元 원년 8월 23일, 西太平寺 沙門 懷素 藏眞 쓰다. 이 해 나이 61세이다.(貞元元年八月二十三日, 西太平寺沙門懷素藏眞書, 時年六十有一.)”를 근거로 회소 출생년을 개원 13년(725년)으로 추정하였으나, 현재 〈清淨經〉은 실전되었고 여러 증거 자료에 의하여 위작으로 판명되었다. 본고에서 서지사항을 명기하지 않은 原典은 모두 文淵閣四庫全書 電子版(上海古籍出版社, 2007)을 참고하였다.

고 잘못 기록한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이후 많은 서적들에서 이를 그대로 답습하였기 때문이었다.⁷⁾ 범명이 회소인 현장 삼장의 문인은 생졸연도가 서기 645~689년(일설에는 624~697년이라고도 함)이므로, 생몰 연도가 737~799년인 서예가 회소와는 100년 정도의 시간적 차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승 회소가 불경 번역가 현장 삼장의 문인이라 잘못 알려지게 된 것은 승려뿐만 아니라 회소라는 이름과 자호를 사용한 일반 문인들도 여럿 존재했었기 때문이었다.⁸⁾

회소는 湖南省 零陵縣에서 태어나 훗날 長沙로 옮겨와 살았다. 어려서 부터 불교를 신봉하여 출가하여 승려가 되었으며 초서 예술에 심취하였다. 대체로 30세가 되기까지는 호남에 머물면서 초서를 휘호하여 호남 지역으로 부임했던 유명 문인 관료들로부터 많은 찬상을 받았다. 그 당시에 회소 초서를 보고 시를 지어 증정한 문인 명사들로는 永州刺史 王 崑[顓], 翰林供奉 李白, 司勳員外郎 盧象, 御史 戴叔倫, 御史 竇冀, 魯牧, 處士 朱達[遙], 御使 李舟, 吏部侍郎 偉陟, 御史 許瑤[瑄], 그리고 蘇渙 등이 있다.

大曆 2년(767년) 30세의 회소는 廣州刺史와 嶺南節度觀察使 겸 御史大夫로 있던 서예가 徐浩를 배방하기 위해 남행을 하였으나, 서호에게 별다른 인정과 대접을 받지 못했던 듯하다. 이후 회소는 북행하여 수도 長安으로 발길을 돌리는데, 이 무렵 馬雲奇와 岳州에서 교유하였고, 당시 潭州刺史로 부임해있던 張謂와 망년지교를 맺게 된다. 대력 3년 장위가 太子左庶子에 임명되어 장안으로 옮겨 갈 때, 회소도 이 무렵에 장위와 함께 장

7) 《中國書法大辭典》, 《唐懷素自敘帖真迹》, 《懷素草書匯編》, 《書法咏論》 등에서 이를 그대로 답습하였다. 예를 들자면, 楊克炎 選注의 《書法咏論》(遼寧美術出版社, 1993), 5쪽, 李白的〈초서를 노래함(草書歌行)〉의 각주에서 “회소는 현장 삼장의 문인이다.”라 주석하였다. 2013년 中國青年出版社에서 《歷代書法咏論》으로 개정판을 내었으나, 이 내용은 여전히 수정되지 않았다.

8) 文淵閣四庫全書 電子版을 검색해 보았을 때, 역대로 회소라는 이름과 자호를 사용한 인물들이 매우 많았다. 승려의 범명 이외에 《新舊唐書》와 《全唐詩》에 수록된 唐代 인물만으로도 馬懷素, 郭懷素, 柳懷素, 馮懷素 등이 있다.

안으로 옮겨갔을 것으로 추정된다. 대력 6년 禮部侍郎에 임명된 장위는 수도 장안에서 회소의 든든한 후견인이 되었던 듯하며, 장위와 任華의 초서가는 이 무렵에 창작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장안에 5년 정도 머물렀던 회소는 대력 7년(772) 고향으로 돌아가려 하였고, 이 때 숙부 항렬인 司勳員外郎 錢起가 <생질 회소 스님이 부모님 모시러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전송함(送外甥懷素上人歸鄉侍奉)>이란 시를 지어주었다. 그러나 고향으로 가는 도중 방향을 바꾸어 東都인 洛陽으로 옮겨가 그곳에서 서예가 鄒彤, <懷素上人草書歌序>를 지은 顏真卿, <僧懷素傳>을 지은 陸羽 등을 만날 기회를 얻는다. 낙양은 狂草家 張旭이 활동했던 곳이지만, 당시 장옥은 이미 세상을 떠나 고인이 되어 만날 수 없었으므로 회소는 크게 아쉬워하였다.

회소는 長安과 洛陽에서 커다란 발전의 기회를 가졌다. 회소는 개성이 탈속하고 초서에 매우 탁월하였기에 顏真卿 등 서예가와 시인과 문인 관료 등 당시 名流와 귀족들의 찬사를 받았고 다투어 시를 증정하였다.⁹⁾ 대력 11년과 12년 지금까지 증정 받은 시와 안진경이 쓴 서문을 뽑아 狂草로 그의 대표작 <自敘帖>을 두 편 완성하였다. 대력 13년 이후의 회소 사적은 자세하지 않지만, 남방으로 돌아와 강남의 명산대천을 유람하였고, 이후 여러 가지 질병에 시달리면서 작품 활동과 양생으로 생활하다가, 만년에 고향 零陵으로 돌아와 貞元 15년(799년) 향년 63세로 사망하였다.

어느 정도 과장은 있겠지만, 회소는 연습하여 닳은 붓을 모아둔 것이 산더미를 이루었다는 ‘筆冢’이나 칠을 한 소반과 널빤지에다 붓글씨를 연습하여 소반에 구멍이 뚫렸다는 ‘盤板皆穿’이란 성어가 만들어질 정도로 연습을 많이 하였고, 이백의 <초서를 노래함(草書歌行)>에서 “호남의 일곱

9) 王琦의 《李太白全集》(全三冊, 中國古典文學基本叢書, 中華書局, 1990) 卷8, 456-458쪽에는 “贈之歌者三十七人, 皆當世名流, 顏真卿作序.”라고 《一統志》의 문장을 인용하여 회소에게 시를 기증한 자가 37인이나 되었고 이들은 모두 당세의 명사였으며 顏真卿이 서문을 지었다고 하고 있으니, 아마도 당대에는 회소초서가가 훨씬 많았을 것이다. 그러나 현전하는 회소초서가는 십여 수에 불과하므로, 이에 대해서는 더욱 자세한 발굴과 고찰이 필요할 듯하다.

군 거의 모든 집에, 집집마다 병풍과 가리개엔 그가 쓴 글씨 두루 퍼져있네.(湖南七郡凡幾家, 家家屏障書題遍.)”라고 읊은 내용으로 보아, 연습도 많이 하였고 작품도 다작하였기 때문에 회소 당대에는 회소 진적 작품이 매우 많았으리라고 짐작할 수 있다. 당대 이후로 수많은 전란과 재난으로 인해 회소의 작품이 많이 소실되었지만, 宋代 宣和 연간에 궁중 御府에 보관하고 있는 회소 작품이 101점이나 된다고 기록하였고,¹⁰⁾ 이후 米芾의 《書史》와 董道의 《廣川書跋》을 비롯해 청대에 이르기까지 많은 전적에는 當代에 전해지고 있는 회소의 초서 진적 작품 목록을 수록하고 있다.

현재까지 전해지고 있는 회소 초서 작품으로는 〈自敍帖〉, 〈苦筍帖〉, 〈論書帖〉, 〈食魚帖〉, 〈大草千字文〉, 〈小草千字文〉, 〈(東陵)聖母帖〉, 〈藏眞帖〉, 〈律公帖〉, 〈桑林帖〉 등이 있고,¹¹⁾ 기타 여러 전적에는 이상의 작품 외에 〈酒狂帖〉, 〈四十二章經〉, 〈六帖〉, 〈北亭草筆〉, 〈貧道帖〉 등 회소의 다른 초서 진적과 석각 및 임모본 등을 더 언급하고 있다.¹²⁾ 회소 서예를 읊은 역대 시가가 많이 존재하고, 이러한 시가들이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창작될 수 있었던 것은 현재까지 회소의 초서 작품이 역대로 비교적 많이 전해졌기 때문일 것이며, 아울러 회소 초서의 작품성과 예술성이 그만큼 뛰어나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들 작품 중에서 가장 대표적이고 유명한 작품은 바로 〈自敍帖〉이다.

10) 《宣和書譜》 卷19에 수록 작품 101종의 목록이 열거되어 있다.

11) 이 목록은 《懷素評傳》(王元軍, 三秦出版社, 2000.5) 176-177쪽에 수록된 작품만을 열거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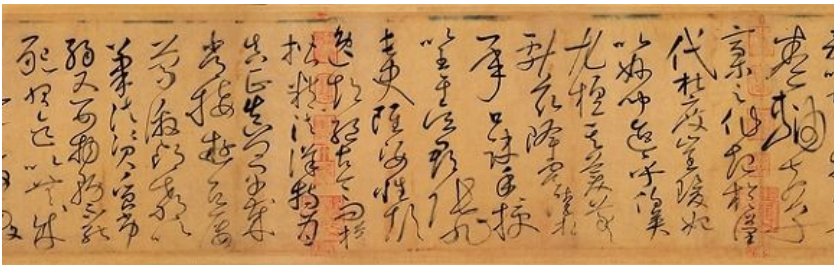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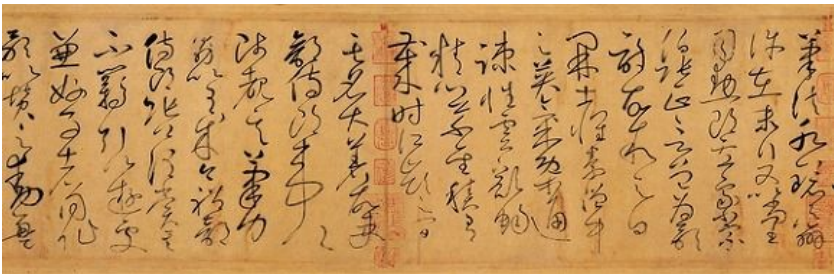
12) 范潤華 著, 곽노봉·이정자 역, 《광초미학(狂草美學)》(도서출판 다운샘, 2016.3) 31쪽에는 위에서 열거한 작품 이외에도 〈客舍帖〉, 〈醉僧帖〉, 〈高座帖〉=〈橫行帖〉, 〈冬熟帖〉, 〈過鍾帖〉=〈右軍帖〉 등을 더 열거하고 있는데, 같은 작품을 다르게 칭하거나, 역대 전적에는 작품명이 수록되어 있으나 현재는 전하지 않는 작품을 함께 열거한 경우, 〈淸淨經〉처럼 처음에는 회소의 진적으로 알려졌지만 후인의 위작으로 판명난 작품도 있을 듯하다. 최근에 간행된 《懷素全集》(楊璐·楊啟 主編, 中國書店, 2016.5)에는 회소의 진적으로 〈正嘉帖〉, 〈藏眞久在帖〉, 〈顛書帖〉, 〈玉露帖〉, 〈久在此帖〉, 〈故人帖〉, 〈石膏散帖〉, 〈尋常帖〉, 〈近代帖〉, 〈杜詩帖〉 등을 더 수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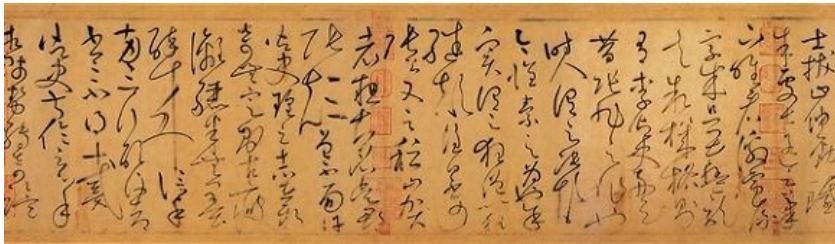
이 작품은 법도를 지키면서도 자유롭고 변화무쌍하여 최고 경지에 이른 초서 작품으로 인정받고 있다.¹³⁾ 현재 臺灣 故宮博物院에 소장되어 있는 필사본 진적은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며 오늘날에 이르렀다.¹⁴⁾ 이 〈자서첩〉 종이 필사본은 송대에 세 종류가 있었다고 하나 지금은 대만 고궁 박물관에 소장된 것이 유일본인 蘇本이다. 세로가 28.3cm, 가로가 755cm 紙本長卷인 이 법첩은 송나라 蘇易簡의 집에 소장되어 대대로 후손들에게 전해졌었는데, 일찍이 앞 6행이 훼손되어 蘇易簡의 손자인 蘇舜欽이 훼손된 부분을 보충하여 써 넣었다고 한다. 두루마리 첫머리에는 명나라 李東陽의 전서인 ‘藏眞自敍’라는 네 글자가 크게 쓰여 있으며, 뒤에는 송나라에서 청나라에 이르는 명가와 수장가의 제발이 덧붙여져 있다.¹⁵⁾ 〈자서첩〉은 전체적으로 이어지는 초서의 기세를 강조하고 있는데, 여러 회소초서가에서 읊고 있듯 둥글고 강건하며 기세 좋은 필치로 마치 ‘쇠 같은 강한 필획과 은 갈고리 같은 부드러운 필체(鐵畫銀鉤)’로 이루어져 있다.

13) 역대로 회소 초서 작품에 대한 선행연구는 매우 많아, 〈自敍帖〉의 流傳과 眞僞에 대한 연구로 〈懷素和尚與自敍帖〉(孫祖白, 新民晚報, 1961.3)을 비롯하여 〈懷素自敍帖眞僞考〉(熊飛, 零陵師專學報, 1990, 第4期), 〈懷素自敍帖眞僞辯〉(練肖河, 賈起家主編 《懷素書學研究文集》, 山西高校聯合出版社, 1995) 등 수십 편이 있고, 다른 서첩과의 비교 연구나 자서첩의 서예 연구 역시 〈懷素自敍帖書法析解〉(馮景昶, 湖南人民出版社, 1984) 등 수십 편이 발표되었으며, 기타 회소의 다른 서첩에 대한 연구로 〈跋唐人懷素論書帖眞迹〉(楊仁愷, 上海人民美術出版社, 1963)을 비롯하여 이루 다 열거할 수 없을 정도이다.

14) 〈自敍帖〉은 현재 두 종류가 전하고 있다. 하나는 현재 西安 碑林에 석각으로 소장된 蜀本 〈自敍帖〉으로 “大曆丙辰秋八月六日沙門懷素.”라는 낙관이 쓰여 있으며, 大曆 丙辰年은 776년으로 회소 나이 40세 때이다. 다른 한 법첩은 현재 臺灣 故宮博物院에 소장되어 있는 蘇本 〈自敍帖〉으로 이 법첩에는 “大曆丁巳冬十月二十有八日.”이라는 낙관이 쓰여 있으며, 大曆 丁巳年은 777년으로 회소 나이 41세 때이다. 《懷素評傳》(王元軍, 三秦出版社, 2000.5) 178쪽에는 이 〈自敍帖〉이 宋代 이후 오늘날 臺灣 故宮博物院에 소장되기까지 유전된 곡절 많은 사연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하였다.

15) 范潤華(곽노봉·이정자 역), 《광초미학(狂草美學)》, 도서출판 다운샘, 2016.3, 32-51쪽에는 〈自敍帖〉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역주가 실려 있다.





〈회소의 자서첩 蘇本 진적 사본〉

Ⅲ. 歷代 회소초서가

1. 唐代的 회소초서가

회소의 서예에 대해 읊은 당대의 시 중에 詩題에 회소의 범명이 들어있는 시만을 열거해보면, 王崑의 〈회소 상인의 초서가(懷素上人草書歌)〉(卷204-9),¹⁶⁾ 竇冀의 〈회소 상인의 초서가(懷素上人草書歌)〉(卷204-10), 魯收의 〈회소 상인의 초서가(懷素上人草書歌)〉(卷204-11), 朱逵의 〈회소 상인의 초서가(懷素上人草書歌)〉(卷204-12), 許瑤의 〈회소 상인의 초서에 제함(題懷素上人草書)〉(卷204-13), 蘇渙의 〈회소 상인의 초서가(懷素上人草書歌)〉(卷255-11), 馬雲奇의 〈회소대사의 초서 노래(懷素師草書歌)〉(書苑菁華), 任華의 〈회소 상인의 초서가(懷素上人草書歌)〉(卷261-3), 戴叔倫의 〈회소 상인의 초서가(懷素上人草書歌)〉(卷273-18), 裴說의 〈회소대가(懷素臺歌)〉(卷720-2), 貫休의 〈회소의 초서를 보고 노래하다(觀懷素草書歌)〉(卷828-32) 등 11수를 들 수 있다.¹⁷⁾ 이밖에 제목에 회소가 언급된 것은 아니지만 시 전체적으로 회소의 초서를 언급한 李白의 〈초서를 노래함(草書歌行)〉(卷167-21), 시의 내용상 회소의 초서 병풍을 보고 읊은 것이 분명한 韓偓의 〈초서 병풍(草書屏風)〉(卷682-43)과 같은 시도 있다.¹⁸⁾

16) 권수 뒤의 숫자는 《全唐詩》에 시가 수록된 순서의 일련번호임.

17) 貫休의 〈회소의 초서를 보고 노래하다(觀懷素草書歌)〉라는 시에서 “이들 옛날의 장위와 임화와 엽계량 같은, 여러 시인들이 시를 지어 드린 것이 어찌 과장이리오.(伊昔張謂任華葉季良, 數子贈歌豈虛飾)”라고 한 것을 보면, 만당 시기까지 회소 초서를 읊은 張謂와 任華와 葉季良의 시가 존재하였던 것을 알 수 있으나, 현재 장위의 시는 殘句만 전해지고 있고, 葉季良의 시는 전하지 않는다. 아울러 王琦의 《李太白全集》(全三冊, 中國古典文學基本叢書, 中華書局, 1990, 456-458쪽) 卷8에는 “贈之歌者三十七人, 皆當世名流, 顏真卿作序.”라고 하고 있으니, 당대에 창작되었던 회소초서가는 훨씬 많았을 것이다.

18) 시제에 회소가 거론된 시로는 韋應物的 〈회소 친구 자서(懷素友子西)〉(卷191-6)나 錢起的 〈생질 회소 스님이 부모님 모시러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전송함(送外甥懷素上人歸鄉侍奉)〉(卷238-68), 戴叔倫의 〈우면주와 함께 장진상

대체로 당대에 지어진 회소초서가는 구체적으로 회소의 어떤 작품을 대상으로 하여 시를 읊고 있는지는 분명하게 명시되지 않는다. 이는 당 이후 초서가의 詩題에서 〈회소의 주광첩 뒤에 제함(題懷素酒狂帖後)〉, 〈당나라 회소의 고순첩에 제함(題唐懷素苦筍帖)〉과 〈회소의 자서첩에 제함(題懷素自序帖)〉이란 시가처럼 회소의 구체적인 초서 작품명이 명시되는 경우와는 다른 점이다.

먼저 이백의 〈초서를 노래함(草書歌行)〉을 한 수 보기로 한다.

少年上人號懷素,	소년 스님 호는 회소인데,
草書天下稱獨步.	초서가 천하에 독보적이라 칭해지네.
墨池飛出北溟魚,	묵지에는 북해의 물고기 날아오르고,
筆鋒殺盡中山兔.	붓끝으로 중산의 토끼 다 잡았네.
八月九月天氣涼,	팔월과 구월에 날씨가 서늘한데,
酒徒詞客滿高堂.	술꾼과 문인들 높은 대청에 가득 하네.
牋麻素絹排數箱,	전지 마지 소지 견지 여러 상자 펼쳐 놓고,
宣州石硯墨色光.	선주의 돌벼루에는 먹빛 빛나네.
吾師醉後倚繩床,	우리 스님 취한 뒤에 팔걸이의자에 기대어,
須臾掃盡數千張.	잠깐 만에 수천 장 다 써 내려가니,
飄風驟雨驚颯颯,	회오리바람 소나기 놀라서 싸썩 소리 내고,
落花飛雪何茫茫.	지는 꽃 날리는 눈처럼 어찌나 자욱한 지?
起來向壁不停手,	일어나 벽보고 손 멈추지 않으니,
一行數字大如斗.	한 줄에 몇 글자 크기가 말만 하네.
恍恍如聞神鬼驚,	멍멍하니 귀신이 놀라는 소리 들리는 듯하고,
時時只見龍蛇走.	때때로 용과 뱀이 달리는 것 보일뿐이라네.
左盤右蹙如驚電,	좌로 돌고 우로 오므린 것이 놀란 번개 같고,
狀同楚漢相攻戰.	그 형세 마치 초나라 한나라가 서로 싸우는 것 같네.
湖南七郡凡幾家,	호남의 일곱 군 거의 모든 집에,
家家屏障書題遍.	집집마다 병풍과 가리개엔 그가 쓴 글씨 두루 퍼져있네.
王逸少, 張伯英,	왕희지와 장지 같은 이,

인을 빈 시(與虞沔州謁藏真人詩)(卷274-77) 등을 더 들 수 있다. 이 시들은 회소 초서를 직접 읊은 것이 아니므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古來幾許浪得名, 예로부터 그 얼마나 헛되이 명성 얻었는가?
 張顛老死不足數, 장옥 늙어 죽었으니 칠 것도 없고,
 我師此義不師古, 우리 스님 이러한 뜻 옛 것 스승삼지 않았네.
 古來萬事貴天生, 예로부터 모든 일 천부적인 것 귀하게 여기니,
 何必要公孫大娘渾脫舞, 하필이면 공손대랑의 혼태무가 필요하겠는가?

대략 長安 원년(701년) 태어난 이백은 737년에 출생한 회소보다 36살이 나 많지만 이 소년 후배의 초서를 매우 추앙하였다.¹⁹⁾ 특히 맹목적으로 옛 것을 본받지 않고 스스로 대담하게 작품을 구성하고 용기 있게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는 그러한 정신을 더욱 칭찬하였다. 작가는 주객과 문인들을 모아 “삼 종이와 흰 비단(賤麻素絹)”을 쌓아두고서는 회소가 술 취한 뒤 초서를 쓰는 전형적인 장면을 선택하여 회소의 傍若無人한 모습과 자유자재로 운필하는 자태와 정신을 그려내었다. 사람들이 이백의 이 시를 읽은 후에는 마치 회소를 직접 만난 듯하고, 회소가 초서를 휘호하는 자태를 현장에서 보는 듯하다. 이 시에서는 전대의 초서 대가로 東晉의 대서예가 逸

19) 이 시는 비록 《全唐詩》 卷167과 《李太白全集》(王琦, 全三册, 中國古典文學基本叢書, 中華書局, 1990, 456-458쪽) 卷8에도 이백의 작품으로 실려 있지만 蘇軾이 이 〈草書歌行〉은 결코 이백의 작품일 수 없다는 견해를 제기한 이래, 《墨池編》 등의 여러 책에서도 이백의 작품이 아니라는 것을 논증하였고, 《李太白全集》을 校註한 王琦 역시 이 시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僞作이라고 단언하였다. 아울러 〈李白草書歌行辨僞〉(胡濟滄, 《書法》, 1982, 第5期)와 같은 논문에서는 이 시가 이백의 창작이 아니라는 점을 5가지 조목으로 정리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郭沫若是 《李白與杜甫》(人民文學出版社, 1972.5, 240-244쪽) 〈杜甫與蘇渙〉에서 이러한 주장들이 모두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또 이와 관련하여 何元元은 〈李白詩草書歌行之眞僞—從李白詩眞僞的辯論探討懷素草書藝術的價值〉(賈起家主編, 《懷素書學研究文集》, 山西高校聯合出版社, 1995)라는 논문에서 胡濟滄이 제시한 5가지 조목을 근거 없다고 반박하며 이 시가 이백의 시가 아닐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長安 원년(701년) 출생하여 寶光 원년(762년)에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이백은 開元 25년(737년)에 태어난 회소보다 36세 정도 나이가 많았으며, 이백이 사망한 해에 회소 나이는 26세에 불과하였다. 여러 가지 이유로 말미암아 이 시는 이백의 창작이 아니라 후인의 가탁일 가능성이 제기되기에 충분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少 王羲之와 東漢의 대서예가 伯英 張芝 및 당대의 광초서가 張旭을 인용하여 서로 대비하면서 회소의 초서를 치켜세우고 있다. 墨池란 원래 벼루의 물을 담아두는 오목한 부분, 곧 硯池라는 뜻과 筆硯을 씻는 못이라는 뜻이 있으나, 여기서는 會稽縣에서 2리쯤 떨어져 있는 왕희지가 벼루를 씻은 못의 고유명사로 쓰였다. 회소 초서의 휘돌아 내려가는 가늘고 굳센 필획을 비유하여 ‘용과 뱀이 달러가다(龍蛇走)’라거나, 거침없이 써 내려가는 초서를 형용하여 ‘놀란 번개 같다(如驚電)’라거나, 회소가 초서 쓰는 것을 보면 사람을 놀라게 함을 ‘초나라 한나라가 서로 전쟁하다(楚漢相攻戰)’라고 묘사한 것은 모두 회소 초서의 특징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회소의 〈自敘帖〉에는 司勳員外郎 盧象을 비롯하여 모두 10명의 〈회소 초서〉가 인용되어 있는데, 이 시들에서는 회소 초서의 형태의 빼어남, 機微와 격식의 오묘함, 필사의 신속함, 타인과의 우열 등 회소 초서의 특징과 풍격을 나름대로 서술하였다. 한결같이 회소 초서를 칭찬하고 긍정적으로 평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이 시들 중 왕옹(王翺)²⁰⁾의 〈회소스님의 초서 노래(懷素上人草書歌)〉 한 수만을 보기로 한다.

衡陽雙峽插天峻,	형양의 쌍협봉 하늘을 찌르고,
靑壁巉巖萬餘仞.	푸른 절벽 낭떠러지 만여 길 넘네.
此中靈秀衆所知,	이곳의 기이한 아름다움은 다 아는 바지만,
草書獨有懷素奇.	초서 중에는 오직 회소만이 기이하다네.
懷素身長五尺四,	회소는 키가 오 척 사촌이지만,
嚼湯誦咒吁可畏.	물을 뵈고 주문 외는 모습 무섭기만 하네.
銅瓶錫杖倚閑庭,	술병과 석장은 한적한 뜰에 놓아두고,
斑管秋毫多逸意.	좋은 붓에서는 빼어난 의기가 넘치네.
或粉壁, 或彩箋,	때론 흰 벽에도 쓰고, 때론 오색 종이에도 쓰는데,
蒲葵絹素何相鮮.	포구잎과 흰 비단을 어찌 보기 드물겠는가.
忽作風馳如電掣,	갑자기 바람이 번갯불처럼 빠르게 몰아치고,

20) 王翺은 王顓으로도 적혀 있는데, 회소의 〈自敘帖〉에는 王翺으로 적고 있다. 중당 시인으로 永州 등지의 牧守를 지냈다고 하나, 다른 사적은 분명치 않다.

更點飛花兼散雪.	점획은 꽃이 날리고 또 눈이 흩어지는 듯하네.
寒猿飲水撼枯藤,	[그대의 초서는] 겨울 원숭이가 마른 등나무에 매달려 물 마시려 뒤흔드는 것 같고,
壯士撥山伸勁鐵.	장사가 산을 뽑고 강철을 펴는 듯하네.
君不見張芝昔日稱獨賢.	그대는 보지 못했는가, 옛날에 장지만 홀로 초성이라 불렀던 것을.
君不見近日張旭爲老顛.	그대는 보지 못했는가, 요즘은 장옥이 광인이라 칭해지는 것을.
二公絕藝人所惜,	장지와 장옥의 빼어난 재주 사람들이 아끼고,
懷素傳之得真迹.	회소는 그것을 전해 받아 진적을 얻었네.
崢嶸蹙出海上山,	높고 험준한 봉우리 바다 위로 솟아오른 산과 같고,
突兀狀成湖畔石.	우뚝한 형태는 호숫가의 바위를 이룬 듯하네.
一縱又一橫,	한 획은 세로로 또 한 획은 가로로,
一欹又一傾.	한 획은 비스듬하고 또 한 획은 앞으로 기울네.
臨漢不羨飛帆勢,	한강의 빠른 돛단배 기세를 부러워하지 마오,
下筆長爲驟雨聲.	글씨 쓸 때마다 늘 소나기 내리는 소리가 나네.
我牧此州喜相識.	내가 이곳 장관으로 있을 때 알게 되어 기뻐했는데,
又見草書多慧力.	그대 초서 보노라면 신비함까지 느껴졌네.
懷素懷素不可得,	회소여, 회소여, 다시 볼 수는 없겠지만,
開卷臨池轉相憶.	작품 펴 임모하다 오히려 그대를 회상하네.

고대의 미신에 스님과 도사들이 부적을 그리거나 주문을 외며 물을 뿜음으로써 병을 치료하고 재앙을 막는다고 여겼는데, 시의 전반부에서 회소가 ‘물을 뿜고 주문 외는(嚼湯誦咒)’이라고 한 것을 보면 회소 역시 이 도술에 통달했음을 알 수 있다. 회소 자신이 쓴 〈自敍帖〉에서도 일찍이 이 시의 “[그의 초서는] 겨울 원숭이가 물 마시려 마른 등나무에 매달려 뒤흔드는 것 같고, 장사가 산을 뽑아 올리려고 펼치는 강력한 쇠 같네.(寒猿飲水撼枯藤, 壯士撥山伸勁鐵.)”라는 두 구절을 인용하였는데, 이 구절은 초서 필획이 險絶하고 강건하며, 위아래가 호응하는 형태가 아주 무거운 것도 들어 올릴 것 같은 초서의 기세를 형용한 것이다. 張懷瓘의 《書斷》에서도 張芝 今草의 형세를 “마치 거꾸로 매달린 원숭이가 시냇물을 마시

려는 형상이고, 같고리 자물쇠가 서로 맞물려 얽혀 있는 형상이다.”라고 하였는데,²¹⁾ 왕옹 역시 당시에 매우 유행하였던 歌行體 시의 형식을 빌려 이 구절의 비유적 표현을 원용하였다. 이 시는 형식상에 있어 3,5,7,10언의 구를 다양하게 활용하고 표현상에 있어서도 다양한 비유적 기법을 활용하여 사상성과 예술성이 비교적 높은 시라고 할 수 있다.

〈자서첩〉에 인용된 당시 명사들의 寄贈詩는 10여수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회소에게 시를 기증한 자가 37인이나 되었는데 모두 당세의 명사였으며 顏眞卿이 서문을 지었다고 하고 있으니,²²⁾ 실제로 37인이나 되는 명사들이 회소 초서를 찬미하는 시를 지어 회소에게 기증해주었을 가능성은 있으나, 《전당시》 등에 실려 있는 회소초서가는 13수밖에 되지 않아 3분의 1만 전해지고 있는 셈이다. 〈자서첩〉에 언급되지 않은 시로 任華²³⁾와 馬雲奇의 작품이 더 전해지고 있는데, 여기서는 마운기의 시 〈회소대사의 초서 노래(懷素師草書歌)〉 한 수만을 인용해본다.

懷素才年三十餘，	회소 나이 겨우 서른 남짓 되었는데，
不出湖南學草書，	호남을 떠나지 않고 초서공부만 하였네.
大夸羲獻將齊德，	왕희지 왕헌지와 덕을 나란히 한다고 크게 칭찬받고，

21) 張懷瓘, 〈章草〉, 《書斷》 卷上, “若懸猿飲澗之象, 鉤鎖連環之狀.”

22) 《一統志》 “贈之歌者三十七人, 皆當世名流, 顏眞卿作序.” 이와 같은 내용은 명의 彭大翼이 편찬한 《山堂肆考》 卷147 〈草書獨步〉에도 “唐僧懷素, 姓錢, 零陵人. 得二王眞迹及二張草書而學之, 漆盤三面俱穴. 贈之詩歌者凡三十九人, 皆當世名流, 顏眞卿作序.”라고 있는데, 시를 기증했던 명사의 수가 조금 다르다.

23) 임화는 李白이나 杜甫와 같은 시대거나 혹은 조금 뒷시대 사람으로, 당 玄宗 때에 활동하였다. 처음에는 秘書省 校書郎을 맡았으나, 후에 조정을 떠나 桂州刺史 參佐가 되었다. 임화는 서예와 시에 뛰어났는데, 현존하는 시 3수 가운데 한 수는 이백을, 한 수는 두보를 읊었고, 한 수는 바로 이 시이다. 당대의 많은 〈懷素上人草書歌〉 중에서 임화의 〈회소스님의 초서 노래(懷素上人草書歌)〉는 편폭이 가장 길고, 서사 기법도 독특하다. 구의 형식 변화는 다양하여 3언에서부터 9언, 가장 긴 구절은 12언까지 뒤섞여 교대로 사용하였는데, 산문 형식으로 전체시의 운율이 느리고 빠르며 들쭉날쭉하여 변화를 예측할 수 없음이 마치 회소 본인이 쓴 초서와도 같다. 이 시는 시가 매우 길고 이미 필자의 다른 논문에서 인용한 적이 있으므로 본고에서는 생략한다.

切比鍾繇也不如。
 疇昔閻梨名蓋代，
 隱秀於今墨池在。
 賀老遙聞怯後生，
 張顛不敢稱先輩。
 一昨江南投亞相，
 盡日花堂書草障。
 含毫勢若斬蛟龍，
 挫管還同斷犀象。
 興來索筆縱橫掃，
 滿望詞人皆道好。
 一點三峰巨石懸，
 長畫萬歲枯松倒。
 叫噉忙忙禮不拘，
 萬字千行意轉殊。
 紫塞傍窺鴻雁翼，
 金盤亂撒水晶珠。
 直爲功成歲月多，
 青草湖中起墨波。
 醉來只愛山翁酒，
 書了寧論道士鶴。
 醒前猶自記華章，
 醉後無論絹與牆。
 眼看筆掉頭還掉，
 只見文狂心不狂。
 自倚能書堪入貢，
 一盞一回捻筆弄。
 壁上颼颼風雨飛，
 行間屹屹龍蛇動。
 在身文翰兩相宜，
 還如明鏡對西施。
 三秋月澹青江水，
 二月花開綠滿枝。

중요와 비교해도 조금도 모자라지 않겠네.
 여태껏 스님의 명성이 세상에서 으뜸이었으니,
 그윽한 품위는 지금도 목자에 그대로 있네.
 하지장은 멀리서 소문 듣고 젊은 후배 겁내고,
 장옥도 감히 자신을 선배라고 칭하지 못하네.
 일전에 강남에서 아상 서호에게 의탁할 때에,
 종일 화려한 대청에서 가리개에 초서를 썼었네.
 붓이 지닌 기세가 교룡을 벨 듯하고,
 붓 꺾어 돌아오미 코뿔소와 코끼리의 뿔을 자를 듯하네.
 흥이 나면 붓 가는대로 종횡으로 휘두르니,
 성망이 높은 문인들 모두 좋다고 칭찬하네.
 점획의 험준함은 마치 바위가 떨어지는 듯하고,
 긴 획은 만년 고송이 거꾸로 자라는 듯 기이하네.
 크게 소리 질러 술 찾고 예의에 구애받지 않았으며,
 많은 글자 여러 줄은 변화와 남다른 운치가 있네.
 변경에서 큰기러기 날개를 엿보듯 확 트였고,
 금쟁반에 수정구슬 흩어놓은 듯 진기하네.
 공을 이루기 위해 오랜 세월 노력하였으니,
 청초호에 먹물의 물결 일기 시작하였네.
 오직 산 노인의 술을 좋아하여 술에 취하고,
 글씨 다 쓴 후 어찌 도사의 거위를 논하겠는가.
 술 깨기 전에도 오히려 화려한 시문을 기억하고,
 술 취한 후에는 비단과 담장을 가리지 않네.
 붓 가는대로 머리가 따라가는 것 보이지만,
 붓끝은 멋대로이나 이미 계산되었음을 알 수 있네.
 글씨 써서 황제에게 바칠 자신이 있다고,
 술 한 잔에 한 번씩 붓을 잡고 놀았네.
 벽에는 썩썩 비바람 날리고,
 행간은 꿈틀꿈틀 용과 뱀이 기어가네.
 몸에 지닌 문장과 필묵이 서로 잘 맞으니,
 또한 맑은 물에 비친 서시의 모습인 듯하네.
 9월 한가을에 달은 얇고 강물은 푸르며,
 2월 봄날에 꽃이 피고 가지 가득 푸르네.

聞道懷素西入秦,	회소가 서쪽 진나라로 간다는 소식을 듣고,
客中相送轉相親	여행 중에도 배웅하여 서로 가까워졌네.
君王必是收狂客,	황제께서 반드시 광객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寄語江潭一路人。	강남으로 여행하는 사람에게 말을 전하네.

대력 2년(767년) 회소가 徐浩에게 의탁한 후 長安으로 들어가기 이전에 지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마운기의 이 〈회소초서〉는 당대에 편찬된 다른 전적에는 보이지 않고 파리 도서관에 소장된 敦煌殘卷(P2555)에 수록된 것으로, 회소의 생애를 고찰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로 받아들여지고 있다.²⁴⁾ 이 시의 첫 구절 “회소 나이 겨우 서른 남짓 되었는데, 호남을 떠나지 않고 초서 공부만 하였네.(懷素才年三十餘, 不出湖南學草書.)”와 시의 내용으로 이 시가 지어진 연도와 이 시가 창작되었을 무렵의 회소 행적 등을 유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체 시는 네 단락으로 나누어져, 첫째 단락은 첫 구에서 “장옥도 감히 자신을 선배라고 말할 수 없네.(張顛不敢稱先輩.)”까지로, 작자는 회소의 서예 수준과 조예가 이전 서예가의 기세를 뛰어넘었다고 칭찬하고 있다. 둘째 단락은 “일전에 강남에서 아상 서호에게 의탁할 때(一昨江南投亞相)”에서 “글씨 다 쓴 후 어찌 도사의 거위를 논하겠는가(書了寧論道士鶴)”까지로, 회소가 글씨 쓸 때의 기세, 점획의 힘준함과 필획의 흘림함, 필획이 고풍스럽고 힘이 있음, 글씨의 운치가 빼어나고 자유분방하며 확 트임, 붓글씨 한 글자 한 글자가 수정구슬 같이 진귀하고 기이함을 비유적으로 형용하였다. 아울러 이러한 경지에 이른 것은 苦學의 결과라고 지적하였다. 賀老는 唐代的 저명한 서예가 賀知章을, 張顛은 당대 광초의 대가 張旭을, 亞相은 廣州刺史로 재임했었던 서예가 徐浩를,²⁵⁾ 道士鶴은 山陰의 도사가 지니고 있던 거위와 자신의 글씨를 바

24) 敦煌殘卷(P2555)에 실린 馬雲奇의 〈懷素師草書歌〉를 다룬 선행연구 역시 〈敦煌唐人陷蕃詩集殘卷作者的新探測〉(潘重規, 臺灣《漢學研究》, 第3卷 第1期)을 위시하여 〈據馬雲奇懷素草書歌再考懷素生平〉(高嵩, 《敦煌唐人詩集殘卷考釋》, 寧夏人民出版社, 1982), 〈馬雲奇懷素草書歌與懷素生平〉(熊飛, 〈92懷素書藝研討會及草書作品展論文集〉, 1992) 등 10여 편 정도가 있다.

꾼 書聖 王羲之[의 고사]를 말하는데, 이들은 모두 당대의 대표적인 서예가들이었다. 셋째 단락은 “깨기 전에도 오히려 화려한 시문을 기억하고(醒前猶自記華章)”에서 “2월 봄날에 꽃이 피고 모든 가지 푸르네(二月花開綠滿枝)”까지로, 회소가 술 마신 후에 글씨 쓰는 신묘한 정신을 묘사하였다. 그러나 회소의 광초도 “붓끝 가는 대로 머리가 따라가(筆掉頭還掉)” 미친 듯 필사하는 듯 보이지만, “글은 미쳐도 마음은 미치지 않았다(文狂心不狂)”고 하여 붓은 제멋대로이나 마음속에는 이미 계산되어 있어, 붓을 대기 전에 구상을 한다고 표현하였다. “회소가 서쪽 진나라로 간다는 소식을 듣고(聞道懷素西入秦)” 이하 4구는 넷째 단락으로, 송별의 정 및 회소에 대한 축원을 나타내었다.

2. 唐 이후의 회소초서가

당대 이후에 회소의 초서를 읊은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五代 楊凝式的 <회소의 주광첩 뒤에 제하다(題懷素酒狂帖後)>(卷715-25), 宋代 杜衍의 <회소의 자서첩 뒤에 제함(題懷素自敍卷後)>(《全宋詩》 卷144)과 司馬光의 <회소의 글씨(懷素書)>(《傳家集》 卷3 古詩2)와 李觀의 <연개법사께서 [회소의] 초서천자문과 함께 유명 재상들이 증정한 시의 서문을 보여주어 이에 답함(答緣槩師見示草書千字文并名公所贈詩序)>(《盱江集》 卷35), 元代 郝經의 <회소의 청렴첩과 투장첩 두 법첩의 노래(懷素青帘鬪將二帖歌)>(《陵川集》 卷8), 明代 沈周的 <서사형이 소장한 회소 자서첩 진적을 보다. 오포암이 모사를 허락하여 속지에게 부쳐주다(觀徐士亨所藏懷素自敍眞跡, 吳匏菴許摹寄速之)>(《石田詩選》 卷8)와 李東陽의 <회소 자서첩 진적을 보고 태사 오원박에게 주는 편지(觀懷素自敍帖眞蹟柬原博太史)>

25) 秦漢의 벼슬제도에 御史大夫를 丞相의 副職으로 삼아 승상이 공석일 때 어사대부가 그 직위를 대신하였기 때문에 후에는 어사대부를 亞相이라 하였는데, 서호는 대력 2년 4월부터 대력 3년 10월까지 廣州刺史와 嶺南節度觀察使 겸 어사대부를 맡았으므로 그를 존칭하여 아상이라 칭하였다.

(《懷麓堂集》卷8)와 吳寬의 〈이빈지의 회소 자서첩 진적을 보고라는 시에 차운하다(次韻李賓之觀懷素自敍帖真蹟)〉(《家藏集》卷10)와 雷思霈의 〈회소 목적을 임서함(臨懷素墨蹟)〉(《御選明詩》卷87), 清代 永理의 〈당나라 회소의 고순첩에 제함(題唐懷素苦筍帖)〉(《書法咏論》), 그리고 근대 高二適의 〈회소의 자서첩에 제함(題懷素自敍帖)〉(《書法咏論》) 등 십여 수 정도를 들 수 있다.²⁶⁾ 그 수는 많지 않지만 五代와 宋代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모든 조대에 걸쳐 회소 초서를 읊은 시가가 창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시들 중 먼저 司馬光(1019~1086)의 〈회소의 글씨(懷素書)〉라는 시를 보도록 한다.

上人工書世所稀,
於今散落無復遺。
君從何處獲數幅,
敗絹蒼蒼不成軸。
雲流電走何縱橫,
昏醉視之雙目明。
烈火燒林虎豹慄,
疾雷裂地龍蛇驚。
須臾掛壁未收卷,
陰風颯颯來吹面。
祗疑神物在閣中,
寶秘不令關俗眼。
嗟余平生不識書,

스님의 뛰어난 글씨 세상에 드문데,
지금은 흩어지고 훼손되고 다시 남은 것 없다네.
그대가 어느 곳에서 여러 폭을 얻었는지,
망가진 비단 푸르죽죽하니 한 축을 이루지 못하네.
구름 흐르고 번개 내달려 종횡으로 거침없는데,
흐릿하니 취한 채 바라보다 두 눈이 밝아지네.
뜨거운 불이 숲을 태워 호랑이와 표범이 전율하고,
급한 번개가 땅을 갈라 용과 뱀이 놀라네.
벽에 걸어두었다 말지 않았던 그 잠깐 사이에,
차가운 바람이 휘휘 불어와 얼굴에 몰아치네.
다만 신묘한 물건이 어둠 속에 있는 듯도 하고,
보배로 비장하니 세속의 식견 상관 않는다네.
아아, 나는 평생 글씨를 잘 알지 못하여,

26) 이 밖에 사고전서 전자판을 검색해보았을 때, 《御製詩集》二集 권9에 〈승회소의 자서첩 진적 두루마리(僧懷素自敍帖真蹟卷)〉라는 칠언 시 두 수와 三集 권93에 실린 〈우연히 회소의 초서천자문 두루마리를 임서하여 ……(偶臨懷素草書千字文卷 ……)〉라는 시제에 懷素와 〈自敍帖〉 등의 여취가 포함된 시가 몇 수 있고, 明의 曹學佺이 편찬한 《石倉歷代詩選》 권300에도 王褒의 〈유자지가 임모한 회소 천자문에 제함(題俞紫之臨懷素千字文)〉이란 시가 있으니, 필자가 찾아내지 못한 회소 초서 관련 시가가 더 많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원명청대의 개인 문집은 현실적으로 자료 취득이 용이하지 않아, 본고에서는 부득이 사고전서 전자판의 문집에 국한하였다.

但愛意氣豪有餘, 단지 의기가 호탕하여 여유 있는 것만 아꼈네.
 欲求數字置座側, 몇 글자 구하여 자리 옆에 두고자 하지만,
 安得滿斗千金珠, 천금의 보주 가득 주어도 어찌 얻을 수 있으리.

회소의 광초는 일찍이 唐代 사람들의 뜨거운 찬양을 받았는데, 이 시는 여전히 그 실마리를 이은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이 시에서는 이 당시의 서풍은 여전히 唐人들의 규범을 따랐으며 宋人들의 격조가 아직 형성되지 않았음을 설명한다. 이 시는 배치가 짜임새 있고 맥락이 분명하다. 시의 서두에서는 당시에 이미 회소의 필적을 매우 보기 힘들어서 비록 殘卷이나 훼손 작품조차도 세상에서는 아주 진귀하게 여긴다고 쓰고 있다. 중간 부분에서는 회소의 필적을 감상하는 느낌을 그렸다. “구름 흐르고 번개 내달려 종횡으로 거침없는데(雲流電走何縱橫)”라 하여 회소 초서의 용필이 거침없고 자유분방함을 형용하였고, “뜨거운 불이 숲이 태워 호랑이와 표범이 전율하고, 급한 번개가 땅을 갈라 용과 뱀이 놀라네.(烈火燒林虎豹慄, 疾雷裂地龍蛇驚.)”라 하여 회소 초서의 기세가 성대하여 사람의 마음과 혼을 움직인다고 형용하였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자신이 비록 회소의 서예를 좋아하지만 그 값이 너무 오르기 때문에 단지 바라보며 탄식할 뿐이라는 사실을 쓰고 있다. 사마광은 북송초의 명신이며 《資治通鑑》을 저술한 사학자로, 송 仁宗 寶元 연간 진사에 급제하여 후에 왕안석이 신법을 실행하자 이를 반대하여 구법당의 영수가 되는 등 재상에까지 올랐었지만, 청렴 검소함으로 세상에 이름이 나 있었으니, 이 시가 하나의 증거인 셈이다.

다음은 명대 沈周(1427~1509)가 지은 〈서사형이 소장한 회소 자서첩 필적을 보다. 오토암이 모사를 허락하여 속지에게 부쳐주다(觀徐士亨所藏懷素自敘真跡, 吳匏菴許摹寄速之)〉라는 긴 제목의 시를 보도록 한다.

藏真儻蕩人, 회소는 호탕하여 구속받지 않는 사람이라,
 草書如易耳, 초서도 마치 이처럼 쉽게 할 뿐이네.
 羲獻卅世師, 왕희지 왕헌지는 백세 동안의 스승이지만,
 擬步爭尺咫, 아마도 이왕과 지척지간에서 경쟁한다네.

長驅並顛旭, 장옥과 함께 먼 길을 달려왔으니,
 所至非易矣. 도달한 바가 쉽게 이를 수 없는 곳이네.
 筆勢酒發之, 붓의 기세는 술에서부터 펼쳐져 나오니,
 將腕兵其指. 팔뚝을 장수 삼고 손가락을 병사 삼았네.
 潛鋒在渾淪. 혼연한 기운 속에 필봉을 감추어 두었고,
 藏力于縑靡. 섬세하고 약함 속에 힘을 숨겨 두었네.
 恍恍遲速間, 어렴풋한 자태는 느림과 빠름 사이에 있고,
 神妙出生死. 신묘한 변화는 삶과 죽음에서 나오네.
 心以禪觀通, 마음은 참선의 달관된 도리와 통하였으니,
 隨物得書旨. 사물의 특징에서 서예의 법칙 체득하였네.
 風雲及虺蛇, 바람과 구름, 용과 뱀처럼 생동적인데,
 信筆變不止. 붓 가는 대로 맡겨 변화가 끝이 없다네.
 一筆備一變, 한 획마다 한 가지 변화를 감추고 있어,
 萬變萬象起. 만 번 변화면 만 가지 형상이 생겨나네.
 固足稱草聖, 진실로 충분히 초성이라 칭해질 만하니,
 多括類書史. 서예의 역사를 대부분 포괄하고 있다네.
 史遷嘗自序, 사마천은 일찍이 사기에 자서를 지었는데,
 此作良有似. 회소의 이 작품은 참으로 그와 유사하네.
 汗漫逾千言, 웅장하고 큰 기세가 천 자 정도 되는데,
 燦爛連數紙. 광채 휘황찬란하게 여러 장이 이어졌네.
 初紙記子美, 처음 시작 부분에 소자미의 기문이 있는데,
 曾補繩玉毀. 일찍이 훼손된 보옥을 보충하여 이었다네.
 山谷亦未見, 황정건도 이 서첩을 예전에 보지 못하였기에,
 曾遭穆父鄙. 일찍이 전목 부친의 편찬을 들어야 했었지.
 後人況肉眼, 후인들은 하물며 저급하고 비루한 안목으로,
 狐鼠得疑似. 가짜 모사본을 진적과 흡사하다 하였지.
 喪亂七百年, 전쟁과 내란이 칠백 년 동안 잦았으나,
 天豈愁遺此. 하늘이 어찌 이 작품 잠깐 남기려 하였으리.
 今日復何日, 오늘이 또 어떤 날인지 모르겠지만,
 所遇亦天使. 이 명품 만난 것도 하늘이 시키신 것이리라.
 未能尋文讀, 글자를 찾아 해독할 겨를이 없어서,
 且以指畫几. 손가락으로 책상 위에도 그대로 써보았지.
 歎羨及未卷, 찬탄과 흠모함으로 마지막 권까지 미쳤는데,

題識驚媿媿.	제말을 보다 선현들의 근면함에 깜짝 놀랐네.
名銜十有六.	이름 올라 있는 이가 열여섯이나 되는데,
尚漏薛劉米.	일찍이 설도조, 유거제, 미불이 빠져 있네.
西臺與祁國.	서대 이진중의 낙관과 기국공 두연의 제발시는,
緒論甫先啟.	머리말처럼 맨 앞부분을 열어 젖혔고,
同叔相諾唯.	소철은 제발 쓰기를 기꺼이 응낙하였고,
公卷特許紀.	남송의 증우는 특별히 기문을 허락하였네.
此輩推名流.	이들은 저명한 분들로 추켜세울 수 있으니,
逐逐到餘子.	나머지 분들에게 하나하나 미칠 수 있겠네.
非惟致贊頌.	오로지 칭찬과 찬송만을 하지 않더라도,
流傳悉源委.	유전됨에 모두 근본과 말단을 지니고 있네.
譬羣介輔賓.	비유하자면, 여러 중개자는 손을 보필하는데,
傳命以成禮.	명을 전함에 예를 갖추어 받드는 것과 같다네.
譬徵十朋龜.	비유컨대, 십 봉의 값나가는 거북으로 징험하여,
信古無餘擬.	길하고 이로워 의심의 여지없는 것과 같은 것이지.
季子肯搨致.	계자 오포암이 기꺼이 임서하여 내게 보내주니,
我詩系其尾.	나의 이 시도 말미에 붙어 있겠네.
南州肯勒石.	강남 지역에서는 기꺼이 돌에 새길 것이니,
萬本播不已.	수도 없이 탐본하여 끊임없이 전파되리라.
不然此紙者.	그렇지 않다면 내 시를 적은 이 종이,
孤注安足倚.	마지막 밀천이니 무엇 족히 기이하리오.

〈自敍帖〉은 현전하는 회소 초서 작품 중에서 가장 뛰어난 것으로, 명나라 때는 먼저 심주와 동시대인 徐士亨이 소유하고 있었고, 후에는 吳寬이 소장하였다. 〈자서첩〉을 읊은 시는 적지 않지만, 이 시의 가치는 명나라 이전까지 〈자서첩〉의 유전과 補書 상황을 개괄하고 있어서, 이 시를 읽은 후 회소의 서예와 〈자서첩〉에 대해 비교적 분명한 인식을 가질 수 있게 해 준다는 것이다. 이 오언 장시에서는 먼저 회소의 서예 조예를 언급하였다. 계속하여 북송의 서예가 蘇舜欽(자가 子美)이 〈자서첩〉의 결손 부분을 補書한 내용, 錢穆의 부친이 錢勰인데, 황정견이 글씨를 쓸 때 소동파가 옆에서 칭찬을 하였으나, 전첩은 오히려 황정견이 회소의 〈자서첩〉을 보

지 못했음을 애석해하였고 후에 황정건은 涪陵 石楊休의 집에서 <자서첩> 진적을 직접 본 후에 초서의 필법을 깨달게 되어, 붓을 대면 날아 움직이는 듯하여 스스로 “부릉에서 초서의 법칙을 체득하였다(得草法於涪陵)”고 하였다는 고사,²⁷⁾ 남송 曾紆(자가 公卷)의 題跋에 의하면 <자서첩>에는 옛날 米芾, 薛道祖, 劉巨濟 세 사람의 제발이 있었다고 하였으나, 심주가 이 첩을 볼 때 三家의 제발은 이미 유실되었다는 언급, 북송의 서예가 李建中의 落款과 杜衍의 題跋詩와 蘇轍이 ‘미산소철동숙기(眉山蘇轍同叔記)’라고 낙관하였다는 題跋에 관한 일화와 기타 여러 所藏家들에 대해 서술하였다. 마지막으로 <자서첩>의 摹拓과 應題에 대한 말로 마무리하였다. ‘狐鼠’는 성안의 여우와 사당의 쥐란 뜻으로, 권세를 빙자하여 몰래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을 비유하며, 여기서는 가짜 모사본을 가리킨다. 회소는 일찍이 “나는 여름 구름이 기이한 봉우리를 많이 만드는 것을 보고, 문득 이를 늘 스승으로 삼았다. 그 통쾌한 점은 마치 새가 숲을 날아 나오고, 놀란 뱀이 풀 속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았다. 또 담벼락이 갈라지는 선처럼 하나하나가 모두 자연스럽다.”고 한 적이 있는데,²⁸⁾ 이 시에서 “사물의 특징에서 서예의 요체를 체득하였네(隨物得書旨)”란 것은 사물의 특징을 바탕으로 하여 서예의 오묘한 법칙을 체득하였다는 회소의 이 말을 언급한 것이다. 이 시는 언어가 질박 평담하고 가정의 일상사를 이야기하듯 친근하여, 심주 시가의 특징을 대변하고 있다.

27) 曾敏行, 《獨醒雜志》 권2 “元祐初, 山谷與東坡錢穆父同游京師寶梵寺. 飯罷, 山谷作草書數紙, 東坡甚稱賞之. 穆父從旁觀曰, “魯直之字近於俗.” 山谷曰, “何故?” 穆父曰, “無他, 但未見懷素真迹爾.” 山谷心頗疑之, 自後不肯爲人作草書. 紹聖中, 謫居涪陵, 始見懷素自叙於石楊休家. 因借之以歸, 摹槩累日, 幾廢寢食. 自此頓悟草法, 下筆飛動, 與元祐已前所書大異. 始信穆父之言不誣, 而穆父死已久矣. 故山谷嘗自謂得草書於涪陵, 恨穆父不及見也.”

28) 倪壽, 《六藝之一錄》 권272, 《歷朝書論》 2, 《唐釋懷素與顏真卿論書》 “吾觀夏雲多奇峰, 輒常師之. 其痛快處如飛鳥出林, 驚蛇入草. 又遇壁拆之路, 一一自然.” 이 내용은 陸羽의 《懷素別傳》에 나오는데, 송대 이후 여러 서론에도 실려 있다. 그런데 葛立方의 《韻語陽秋》 권40 외 몇몇 전적은 이 문구가 “吾觀夏雲多奇峰, 輒常師之. 夏雲因風變化乃無常勢, 又遇壁拆之路, 一一自然.” 이라 되어 내용상 약간씩 다른 부분이 있다.

마지막으로 淸 高宗 弘歷의 11째 아들로 乾隆 54년에 成親王에 봉해졌던 청 중엽의 저명한 서예가 永瑒의 <당나라 회소의 고순첩에 제함(題唐懷素苦筍帖)>을 한 수만 더 보기로 한다.

千年苦筍帖,	천년 동안 전해진 <고순첩>이라,
草法見藏眞.	초서의 법은 장진 회소에게서 볼 수 있네.
食肉全無相,	고기를 먹는 상이 완전히 없으니,
參禪有後人.	참선에는 따라 하는 뒷사람들이 있네.
平原論釵股,	평원 안진경은 절차고의 서법을 논하고,
長史脫冠巾.	장욱은 [회소의 글씨 앞에서] 관과 두건을 벗었네.
遺迹俱寥貌,	남겨진 글씨 세상에 전해지는 것 드문데,
唯斯獨傳神.	오직 <고순첩>만 회소 광초의 신묘함을 전하네.

絹本으로 두 줄 열네 자로 구성된 懷素의 <苦筍帖>은 회소의 초서 중에서도 비교적 많이 알려진 훌륭한 작품이다. 위에 “永瑒之印”이 찍혀 있는 것은 이 서첩이 일찍이 영성의 손을 거친 적이 있음을 보여준다. 이 시는 즉흥적으로 펼쳐낸 것이 아니라, 시인이 반복하여 감상하고 여러 번 손으로 다듬고 나서 쓴 작품이다. 이 시의 첫째 연에서는 <고순첩>에서 회소 초서 필법의 요체를 탐구할 수 있다고 하였고, 둘째 연에서는 회소의 신세와 처지, 그리고 그의 서예가 후세에 미친 영향을 서술하였다. “食肉全無相”은 “全無食肉相”의 도치로 “고기를 먹는 상이 전혀 없다.”는 뜻인데, 회소가 서예를 너무 좋아하였으나 곤궁하여 부귀영화와는 연분이 없다는 말이다. 셋째 연 “平原論釵股”에서는 회소와 顏眞卿과 張旭 사이의 사승 관계를 이야기하였다. 평원은 안진경을 가리킨다. 서예의 기법에서 장욱의 기법을 折釵股라 하고, 안진경의 기법을 屋漏痕이라 하는데, 사실 시에서 안진경이 차고의 서법을 논했다고 한 것은 잘못이다. 회소는 일찍이 안진경과 서예를 논한 적이 있는데, 唐 陸羽는 일찍이 <懷素別傳>에서 그 일을 자세히 기록하였다.²⁹⁾ 넷째 연에서는 유전되는 회소의 진적 작품이 너무 적고 오직 <고순첩>이 회소의 狂草에 나타난 신묘함을 전한다고 하

여 〈고순첩〉이 더욱 귀하다고 감탄하였다. 이 시는 시인이 회소의 서예를 양모하며, 회소가 남긴 작품을 소중하게 여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IV. 회소초서가의 특징

지금까지 분석한 회소초서가의 시적 특징을 정리해보면 대체로 다음과 같이 詩題, 형식, 내용, 표현 기법 등 네 분야로 요약할 수 있을 듯하다.

첫째, 대체로 당대에 지어진 회소초서가는 구체적으로 회소의 어떤 작품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을 명확히 밝힌 경우가 거의 없는데 반해, 당 이후 회소초서가는 대부분 詩題에 〈회소의 주광첩 뒤에 제함(題懷素酒狂帖後)〉, 〈회소의 청렴첩과 투장첩 두 법첩의 노래(懷素青帘鬪將二帖歌)〉, 〈당나라 회소의 고순첩에 제함(題唐懷素苦筭帖)〉, 〈회소의 자서첩에 제함(題懷素自序帖)〉과 같이 구체적인 회소의 초서 작품명이 명시되었다. 회소가 작품을 다작하였기 때문에 당대에는 회소의 진적 작품이 매우 많았으리라고 짐작할 수 있고, 또 당대에는 회소의 휘호를 직접 눈으로 보고 시를 창작한 경우가 많았을 것이므로 특별히 진적의 작품 명칭을 부여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당대 이후로 수많은 전란과 재난으로 인해 작품이 많이 소실되었을 것이고, 宋代 宣和 연간에 궁중 御府에서 보관 중이던 101편의 회소 작품에 이미 작품명을 명시하였을 것이므로, 아마도 송대 전후부터는 회소의 초서 진적에 작품 명칭이 부여되어 후대로 유전되었을 것이다. 이로 인해 청대에 이르기까지 시인들이 직접 육안으로 보고 시로 읊은 회소 초서 작품들은 모두 작품명이 정해져 있었을 것이고, 시인들은 이를 시제에 명기하는 것이 일반화 되었을 것이다.

둘째, 당대의 회소초서가는 거의 대다수가 칠언고시 또는 가행체의 형식을 빌리고 있다. 현전하는 당대의 회소초서가 13수 중에서 오언은 韓偓의 〈초서 병풍(草書屏風)〉 한 수 밖에 없고, 칠언고시가 8수, 칠언 위주의

29) 《御定佩文齋書畫譜》 권5, 陸羽의 〈懷素別傳〉, 〈釋懷素與顏真卿論草書〉

잡언체가 3수, 칠언절구가 1수로 칠언시가 12수나 되어 95%이상을 점하고 있다. 이는 시인들이 자유분방하고 종횡으로 거리낌 없이 연결되는 광초의 특성을 십분 살리면서 광초의 풍미를 가장 잘 읊어낼 수 있는 시가 형식으로 장단이 자유롭고 형식이 자유로운 가행체와 잡언체를 주로 채택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아울러 칠언시가 다수를 점하고 있는 이유도 광초의 풍격과 형식을 비유적인 표현을 빌려 묘사하기에는 오언의 짧은 리듬보다 한 구의 호흡이 길어 좀 더 많은 것을 표현할 수 있는 칠언시를 시인들이 상대적으로 더 선호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시인이 표현하고자 하는 바를 더 많이 더 용이하게 은유적으로 묘사하기에는 칠언시가 더 적당한 형식이었다고 하겠다. 하지만 송대 이후에 회소 초서를 읊은 시들에서는 여전히 칠언시가 다수를 점하고 있긴 하지만, 가행체거나 고시가 특별히 다수를 점한다는 특징은 나타나지 않는다. 오히려 칠언절구나 오칠언 율시가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청대에 유행했던 ‘論書絕句’와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各 朝代別로 전형적인 시 한두 수만을 인용하였지만, 이러한 점은 본고에서 인용한 명청대의 시가 오언고시와 오언율시라는 점에서도 잘 드러난다.

셋째, 회소초서가의 내용을 살펴보면 회소의 인품과 성격, 행동 등에 대한 묘사가 먼저 기술되고, 다음으로 초서를 휘호할 때의 자태, 자유분방하고 광일한 초서의 형태와 풍격 등을 비유적으로 묘사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앞에서 인용한 회소초서가 대부분은 회소의 초서에 대해 찬탄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회소의 초서를 감상하고 시를 지을 경우에는 회소 초서의 우수함과 특특함을 부각시키는 긍정적인 평가가 대부분이다.³⁰⁾

넷째, 회소초서가에 나타난 표현 기법상의 특징으로 直喩와 隱喩 등 비

30) 당송대 이후 지금까지 나온 書論 관련 서적에는 회소 초서에 관한 평가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매우 많은데, 회소 초서를 평하는 경우 운문인 시가보다 산문인 경우가 훨씬 더 많다. 이 경우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내는 경우도 간혹 있으나, 부정적인 평들도 회소 초서 자체를 부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필사할 때 방약무인한 태도나 스님으로서의 행동 등을 지적하는 경우이다.

유적인 표현을 특히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비유가 시적 언어에서 중요한 한 부분임에는 분명하지만,³¹⁾ 회소초서가에서는 비유적 수사기교가 유난히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이는 서예 작품이나 필획을 직설적으로 묘사하는 것보다 여러 비유 대상을 활용하는 것이 더 구체적으로 대상을 형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시적 표현으로 가장 흔히 쓰이는 비유 형태는 직유로 서술적 접사 ‘如’ 또는 ‘似’와 같은 어휘로 원관념과 보조관념 양자를 연결시키는 방법인데, 이러한 직유는 거의 모든 시 속에서 보이고 있다. 아마도 글씨의 모양이나 필세를 형용하는 가장 쉬운 표현 방법이었기 때문일 것인데, 李白, 蘇渙, 貫休, 任華, 馬雲奇의 시에서는 한 수의 시 속에 4차례 이상이나 접속사 ‘如’ 또는 ‘似’를 사용하여 운필이나 필세, 필획, 글자의 크기, 자체의 변화, 또는 작품 전체를 비유하였다.³²⁾ 접속사 ‘如’를 사용하여 비유적 표현을 사용한 것 외에, ‘如’와 ‘似’가 對句에서 함께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 직유 이외에 직유의 축약형식인 은유의 기법을 사용하여 필획이나 작품을 평하는 것도 일반적인 표현 기법이다. 은유는 가장 시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데, 회소의 초서 작품이나 運筆을 묘사하기 위해 회오리바람, 놀란 번개, 용과 뱀, 실, 꽃, 구야검, 뜬구름, 배민의 쌍칼춤, 오도자의 귀신 그림, 산과 바다, 거울 속의 서씨 등 매우 다양한 보조관념이 등장한다.

살아 움직이는 생동하는 필획을 묘사하는 가장 흔한 보조관념은 龍[때

31) 이에 관해서는 줄고 〈唐代 書藝詩 試探〉, 《中語中文學》 第43輯, 2008.12., 163-169쪽에서 상세하게 다루었다. 본고에서는 회소 초서 관련 내용만을 가려 뽑아서 요약 정리하였다.

32) 지면 관계상 여기서는 전형적인 예로 소환의 〈회소스님의 초서 노래(懷素上人草書歌)〉에서 “新書大字大如斗。興來走筆如旋風。……忽如裴旻舞雙劍。……又如吳生畫鬼神。……(새로 쓴 큰 글씨는 크기가 말만 하네. 흥이 일면 운필이 회오리바람 이는 것 같고, …… 문득 배민이 쌍칼춤 추는 것 같이, …… 또 오도자가 귀신을 그린 그림 같아, ……)”라고 구를 든다. 裴旻의 칼춤과 李白의 詩歌와 張旭의 狂草를 당시에는 “三絶”이라 합칭 하였는데, 소환의 이 시에서는 직유, 은유의 수사기교를 함께 사용하면서 회소 스님의 광초를 배민의 칼춤과 오도자의 그림과 동열에 두어, 입신의 경지에 이른 세 가지를 나열함으로써, 회소의 광초가 기이하고 훌륭하여 경악을 금치 못함을 말하고 있다.

로는 蛇와 함께]이다. 특히 초서의 필획을 형용할 때, 비유 대상으로 용이 가장 일반적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가늘고 긴 글씨의 획이 마치 용 같은 형상을 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며, 용이 신비함을 지닌 상상의 동물이기에 필획의 뛰어남과 신묘함을 비유하기가 더욱 용이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별안간 수많은 검은 용이 솟아오르는 듯하네(忽然躍出千黑龍)”(任華 <회소스님의 초서 노래(懷素上人草書歌)>), “용과 뱀이 빙빙 돌아 오르고 짐승이 우뚝 서 있는 듯하네(龍蛇騰盤獸屹立)”(戴叔倫 <회소스님의 초서 노래(懷素上人草書歌)>)처럼 용[과 뱀]으로 필획을 비유한 예는 상당히 많다. 이는 예로부터 문자 또는 붓글씨 필획의 빼어나고 생동적인 것을 龍文이라는 용어로 형용한 것처럼,³³⁾ 어떤 한 서예가의 필획이 생동하고 활력이 충만하면 일반적으로 이를 마치 용이 날고 뱀이 춤추는 것 같다고 표현한 듯하다. 이로 인해 楊凝式 같은 시인은 서예 작품이 뛰어나면 그 체득함이 반드시 진짜 용으로 현화하는 것 같다고 과장되게 표현하기도 하였다.³⁴⁾ 袁昂이 梁武帝에게 편찬하여 올린 <古今書評>에서 蕭思話의 서예를 평하여 “마치 용이 천문을 뛰어오르고 범이 봉궐에 누운 것 같다(如龍跳天門, 虎臥鳳闕)”고 하였는데, 이러한 표현은 賀知章, 張旭, 懷素와 같은 초서가들의 웅건하고 생동적인 서예를 형용할 때도 주로 사용되어, 생동하고 비범한 필적을 흔히 날아오르는 용과 뛰어오르는 범에 비유하였다.

때로는 필획의 생동함이나 빠름, 글씨의 웅장함이나 강건함, 서예가의 웅건함을 霹靂, 電 등에 비유하여 “붓 아래는 오직 격한 번개 흐르는 것 보일뿐(筆下惟看激電流)”(朱達 <회소 스님의 초서 노래(懷素上人草書歌)>)이라 표현하기도 하였는데, 번개나 벼락이 강한 기운을 지니고 있고, 또 실 같은 기다란 형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글씨의 웅강한 필획을 하늘의 자연 현상인 벼락이나 번개에 비유하였던 듯하다. 때로 소나무나 소나무

33) 李嶠, <서(書)>(卷59-33) “삭간에는 빼어나고 생동적인 글씨가 드러나고(削簡龍文見)”

34) 楊凝式, <회소의 주광첩 뒤에 제하다(題懷素酒狂帖後)> “붓끝에서 풀어져 나와 용이 되어 날아가네(筆端應解化龍飛)”

가지로 필획이나 작품의 고고한 운치를 묘사하여 “가운데는 마른 소나무 가지 만 길 엇갈려 있는 듯하고(中有枯松錯落一萬丈)”(任華 <회소스님의 초서 노래(懷素上人草書歌)>)처럼 소나무에 필획을 비유하기도 하였다. 필획과 작품 전체의 기세를 그 형태와 기운으로 보아 용, 뱀, 번개, 소나무, 술가지 등으로 비유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유가 있어 보이지만, 때로 “날리는 꽃에다 눈까지 흩어지네(更點飛花兼散雪)”(王巖 <회소스님의 초서 노래(懷素上人草書歌)>)처럼 점획을 날리는 꽃이나 눈에 비유하거나, “점획의 험준함 마치 바위가 떨어지는 듯하고(一點三峰巨石懸)”(馬雲奇 <회소대사의 초서 노래(懷素師草書歌)>)처럼 기운생동하는 점획의 모양을 험준하고 나는 듯한 바위나 암석의 형상에 비유하였다.³⁵⁾ 이 밖에 붓글씨 한 글자 한 글자의 기이함을 수정구슬 같이 진귀하다고 형용하여 “금쟁반에 수정구슬 흩어놓은 듯하네(金盤亂撒水晶珠)”(馬雲奇 <회소대사의 초서 노래(懷素師草書歌)>)라 하거나, 필획의 화려 유연함을 금실이 흘러내리는 것 같다고 하여 “혹은 아주 세미하여, 신선의 옷자락 반이 갈라져 금실이 흘러내린 듯하다(或細微, 仙衣半拆金線垂)”(貫休 <회소의 초서를 보고 부른 노래(觀懷素草書歌)>)고도 하였는데, 이처럼 다양한 보조관념을 이용하여 회소 초서의 훌륭함과 빼어남을 비유하였다. 이처럼 직유 은유의 여러 가지 비유와 심상을 동원하여 필획과 점획, 운필과 필세, 작품의 품격 등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고자 한 것은 회소초서가의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초서의 형태와 풍격을 일반적으로 묘사하기에는 적절한 보조관념을 많이 사용하여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가장 손쉬운 방법이었을 것이다.

서예시는 초당부터 창작되었지만, 시승이 지은 서예시는 중만당 이후부터 보이기 시작한다. 당대에는 불교가 성행하면서 유명한 詩僧과 글씨를

35) 필획을 바위나 산석에 비유하는 것은 다소 생경한 듯도 하지만, 晉 衛瓘의 <필진도(筆陣圖)>에서 “점획은 마치 높은 봉우리에서 떨어지는 돌과 같아, 그 돌 부딪치는 소리가 실로 산이 무너지는 것 같다(點如高峰墜石, 礚礚然實如山崩也)”라고 하였듯, 점획의 험준함과 굳센을 형용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

잘 썼던 書僧과 그림을 잘 그렸던 畫僧 역시 상당히 많이 출현하였으니, 시승, 서승, 화승도 중만당에 들어서야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한 것과 궤를 같이한다. 일반 문인사대부들과 승려와의 교류도 많아져, 유명 서승과 이들의 서예를 읊은 문인사대부들의 시 역시 당대에 등장하기는 하지만, 중당 시기부터 보편화되었던 듯하다. 가장 대표적인 서승인 회소의 초서를 읊은 문인사대부로는 이백을 시작으로 하지만, 皎然이나 貫休 같은 시승 화승이 회소나 변광 같은 서승의 서예를 읊은 경우는 거의 대다수 중만당 시기에 집중되었다.

V. 결 론

필자는 당대부터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했던 서승의 시와 서예에 대해 포괄적으로 연구해보고자 하였으나, 당대의 서승 모두를 한 편의 짧은 논문에서 모두 다룰 수 없기 때문에, 당대 서승과 서승의 서예 및 이들 서승의 서예를 읊은 시에 대한 연구의 일환으로, 본고에서는 먼저 회소의 서예 작품과 회소 초서를 읊고 있는 역대 시가를 추출 정리하고 분석해보았다. 회소는 일단 생졸 연대도 논란이 있었으므로 먼저 회소의 생애와 회소 초서에 대해 대략적으로 다루어본 후, 당대 회소 초서가와 당 이후의 역대 회소초서가에 대해서 탐색하였다. 필자가 추출한 당대의 회소초서가는 王 崑의 〈회소 상인의 초서가(懷素上人草書歌)〉를 비롯하여 총 13수, 당 이후 회소 초서를 읊고 있는 시로는 五代 楊凝式的 〈회소의 주광첩 뒤에 제하다(題懷素酒狂帖後)〉를 비롯하여 각 조대의 총 15수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이를 토대로 회소초서가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역대 회소초서가의 특징을 시제, 형식, 내용, 표현 기법 등 4가지 방면으로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체로 당대에 지어진 회소초서가는 구체적으로 회소의 어떤 작품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을 명확히 밝힌 경우가 거의 없는데 반해, 당 이후 회소초서가는 詩題에 구체적인 회소의 초서

작품명이 명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둘째, 당대의 회소초서가는 거의 대다수가 칠언 고시 또는 칠언 위주의 가행체 형식으로 칠언시가 95% 이상을 점하고 있다. 이는 자유분방하고 종횡으로 거리낌 없이 연결되는 광초의 특성을 십분 살리면서 광초의 풍미를 가장 잘 읊어낼 수 있는 시가 형식으로 장단이 자유롭고 형식이 자유로운 가행체와 잡언체를 주로 채택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아울러 칠언시가 다수를 점하고 있는 이유도 광초의 풍격과 형식을 비유적인 표현을 빌려 묘사하기에는 오언의 짧은 리듬 보다는 좀 더 많은 것을 표현할 수 있는 칠언시를 시인들이 상대적으로 더 선호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송대 이후 회소 초서를 읊은 시들에서는 여전히 칠언시가 다수를 점하고 있긴 하지만, 가행체가나 고시가 다수를 점한다는 등의 별다른 특징은 나타나지 않았다. 오히려 칠언절구나 오칠언 율시가 반 이상을 차지하였는데, 이는 청대에 유행했던 ‘論書絕句’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회소초서가 대부분은 기본적으로 회소 초서를 찬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회소초서가의 내용을 살펴보면 회소의 인품과 성격, 행동 등에 대한 묘사가 먼저 기술되는 경우가 많고, 그 다음으로 초서를 휘호할 때의 자태, 자유분방하고 광일한 초서의 형태와 풍격 등을 비유적으로 묘사하였다. 즉 회소의 초서를 감상하고 시를 지을 경우에는 회소 초서의 특이함과 우수함을 부각시키는 긍정적인 평가가 일반적이다. 넷째, 회소초서가에 나타난 표현 기법상의 특징으로는 직유와 은유 등 비유적인 표현을 특히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비유가 시적 언어에서 중요한 한 부분임에는 분명하지만, 회소초서가에서는 비유적 수사기교가 유난히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이는 초서의 필획을 직설적으로 묘사하는 것보다 여러 비유 대상을 활용하는 것이 더 구체적으로 대상을 형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서예시는 초당부터 꾸준히 창작되었지만, 유명 서승과 이들의 서예를 읊은 문인사대부들의 시와 시승이 지은 서예시는 주로 중만당 이후부터 보이기 시작한다. 당대에는 문화적 소양을 갖춘 승려도 많이 배출되어 유명한 詩僧과 글씨를 잘 썼던 書僧과 그림을 잘 그렸던 畫僧 역시 상당히

많이 출현하였으나 이들 시승, 서승, 화승도 중만당에 들어서야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하였다. 일반 문인사대부들과 승려와의 교류도 많아져 유명 서승과 이들의 서예를 읊은 문인사대부들의 시 역시 당대에 등장하기는 하지만, 중당 시기부터 보편화되었던 듯하다. 또 皎然과 貫休 같은 시승이나 화승이 회소나 변광 같은 서승의 서예를 읊은 경우도 거의 대다수 중만당 시기에 창작되었다. 당대 문인사대부들과 서승의 교류, 중만당 시기 시승과 서승과 화승의 교류, 그리고 시가 이외에 회소 초서를 평하고 있는 산문 書論에 대한 연구는 다음 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References>

1. Cai Xianliang. *A Study on the poems on Calligraphy on Tang Dynasty*. Nanjing yishu xueyuan, Master's thesis, 2004.4.
2. *Complete Library in Four Branches of Literature, the Electronic Version of Siku Quanshu* (Wenyuange Edition, 3.0edition). Shanghai: Shanghai Classics Publishing House, 2007.
3. Fan Runhua(Gwak, Nobong & Lee, Jeongja Tran). *Aesthetics of an excessively free cursive style in calligraphy*. Book publishing Daunsaem, 2016.3.
4. Fang Ailong. "Cursive Song Poetry and Huai Su's Cursive style of writing". *Journal of Hangzhou Normal College* No.4, (Sep.1992).
5. Fang Ailong. "Review of research status of Huai Su's Life". *Journal of Hangzhou Normal College* No.2, (Mar.1994).
6. Fang Ailong. "Ma Yunqi and his Cursive Song Poetry on the Huai Su's Cursive style of writing". *Journal of Zhejiang College of Broadcasting and Television* No.5, (Aug.1995).
7. He Yuanyuan. "The authenticity of Cursive song poetry of Li Bai".

- Jia Qijia eds. *Research papers on the Huai Su's Cursive style of writing*. Shanxi United University Press, 1995.
8. Hu Jicang. "Detection of forgeries of Li Bai's Cursive song poetry". *Calligraphy* No.5, (1982).
 9. Guo Moruo. *Li Bai and Du Fu*. People's Literature Publishing House, 1972.5.
 10. Li Bai, Wang Qi eds, *Litaiboquanji: The Collection of Li Bai's Works* (all 3vol), Zhongguo gudianwenxue jiben congshu, Chunghwa book co, 1990, 1edition, Beijing.
 11. *QuanTangshi: Complete poetry of the Tang*(all 2vol). Taibei: Taiwan Hongye shuju, Minguo71[1982].
 12. Wang Yuanjun, *Critical Biography of Huai Su*, Sanqin publishing house, 2000.5.
 13. Woo, Jae-Ho. "A Study on The poetry that treats of Calligraphic of Tang Dynasty". *Korea Journal of Chinese Language and Literature* Vol.43, (2008.12).
 14. Woo, Jae-Ho. "A Study on *The Four Friends of the Study* in Poetry of Tang Dynasty", *The Journal of Study on Language and Culture of Korea and China* Vol.37, (2015.2).
 15. Woo Jae-Ho. "Du fu's Aesthetic view of calligraphy and Evaluation of future generations". *Journal of Chinese Language and Literature* Vol.75, (2017.8).
 16. Woo, Jae-Ho & Baek, Yeong-sun. "Translated and Annotated of Chinese Calligraphy poetry ever(1-2)". *The Translations of Chinese Language and Literature* Vol.20-21, (2004.3-2004.11).
 17. Woo, Jae-Ho. "Translated and Annotated of Chinese Calligraphy poetry ever(3-16)". *The Translations of Chinese Language and Literature*, Yeungnam University Vol.28-43, (2008.5-2015.11).

18. Xiong Fei. "Ma Yunqi's Cursive Song Poetry on the Huai Su's Cursive style of writing and Huai Su's Life". *Journal of Lingling Normal University* No.2, (1993).
19. Yang Keyan. *Shufayonglun*, Shenyang: Liaoning Fine arts Publishing House, 1993.
20. Yang lu·Yang yu, *HuaiSuquanji: The Collection of Huai Su's Works* (all 2vol), China Books, 2016.5.
21. Zhu Guantian, *History of Chinese Calligraphy: Volume of Sui, T'ang and Five Dynasties Period*. Jiangsu Education Publishing House, 2014.6.
22. Zhou Xiaoru & Zhang Yang. *Chinese Monk Calligraphy of many generations*. Shandong Pictorial publishing House, 2011.

< 참고문헌 >

1. 蔡顯良, 《唐代論書詩研究》, 南京藝術學院 碩士學位論文, 2004.4.
2. 文淵閣四庫全書, 電子版, 3.0版, 上海古籍出版社, 2007.
3. 范潤華(곽노봉·이정자 역), 《광초미학(狂草美學)》, 도서출판 다운샘, 2016.3.
4. 方愛龍, 〈草書歌詩與懷素草書〉, 《杭州師範學院學報》第4期, 1992.9.
5. 方愛龍, 〈懷素生平研究現狀綜述〉, 《杭州師範學院學報》第2期, 1994.3.
6. 方愛龍, 〈馬雲奇及其懷素師草書歌〉, 《浙江廣播電視高等專科學校學報》, 1995.
7. 何元元, 〈李白詩草書歌行之真偽—從李白詩真偽的辯論探討懷素草書藝術的價值〉, 賈起家主編 《懷素書學研究文集》, 山西高校聯合出版社, 1995.
8. 胡濟滄, 〈李白草書歌行辨偽〉, 《書法》, 第5期, 1982.

9. 郭沫若, 《李白與杜甫》, 人民文學出版社, 1972.5.
10. 王琦, 《李太白全集》(全三冊), 中國古典文學基本叢書, 中華書局, 1990.
11. 《全唐詩》(上·下), 臺灣 宏業書局, 民國71年, 再版
12. 王元軍, 《懷素評傳》, 三秦出版社, 2000.5
13. 禹在鎬, 〈唐代 書藝詩 試探〉, 《中語中文學》 第43輯, 2008.12.
14. 禹在鎬, 〈文房四友를 읊은 唐詩에 관하여〉, 《韓中言語文化研究》 제 37집, 2015.2
15. 禹在鎬, 〈杜甫의 書藝觀과 後代의 評價〉, 《中國語文學》 第75輯, 2017.8.
16. 禹在鎬·白榮順, 〈中國歷代 詠書詩 譯註〉(1-4), 嶺南大中國文學研究室 刊, 《中國語文學譯叢》 第20-21輯, 2004. 3-2004.11.
17. 禹在鎬, 〈中國歷代 詠書詩 譯註(5-16)〉, 嶺南大中國文學研究室 刊, 《中國語文學譯叢》 第28-43輯, 2008.5-2015.11.
18. 熊飛, 〈馬雲奇懷素草書歌詩與懷素生平〉, 《零陵師專學報》 第2期, 1993.
19. 楊克炎 選注, 《書法咏論》, 遼寧美術出版社, 1993.
20. 楊璐·楊敵 主編, 《懷素全集》(全二冊), 中國書店, 2016.5.
21. 朱關田, 《中國書法史: 隋唐五代卷》, 4刷, 江蘇教育出版社 2014.6.
22. 周小儒·張揚, 《中國歷代僧侶書法》, 山東畫報出版社, 2011.

< Abstract >

This paper is a part of study on monk calligrapher and poetry of monk calligrapher who were engaged in activities since the beginning of Tang Dynasty. Since I can not deal with all the poems on calligraphy and monk calligraphy of many generations in one short essay, I first selected and analyzed Cursive song poetry on the Huai Su's Cursive style of writing. Among the numerous monk calligraphers, Huai Su's calligraphy

and poetry created by contemporary poets have been passed down to the present day, and since then Huai Su is represented as a typical monk calligraphy. Since the date of birth and entire life of Huai Su was not even clear yet, in the first chapter, I tried to summarize the life of Huai Su. And in the next chapter, I selected and analyzed 13 pieces of Cursive song poetry on the Huai Su's Cursive style of writing in Tang Dynasty, and 15 pieces of that in next many dynasties. Based on this, I summarized the poetic characteristics of Cursive Song Poetry on the Huai Su's Cursive style of writing of many generations in four areas such as title, form, content, and expression technique.

Key Words : 懷素(Huai Su), 草書(Cursive style of writing), 草書歌(Cursive Song Poetry), 書藝(Calligraphy), 書藝詩(The poems on Calligraphy), 書僧(Monk Calligrapher)

